

AI 인프라 대응 5G SA 전환 속도... 통신장비 수요 기대감

통신3사, 올해까지 전환 의무화
피지컬 AI 안정적 연결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기능 도입 필수
RFHIC, GaN 기반 전력 증폭기
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 등 '주목'

이동통신 업계가 5세대 이동통신(5G) 단독모드(SA)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중소 통신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5G 망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장비 교체와 증설 비용이 투입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까지 전국 통신망의 5G SA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을 위해 올해 5G SA를 의무화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만료되는 3G·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업계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대가를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엔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이동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 400Kbps)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이용약관 개정·요금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5G SA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피지컬 AI가 있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공장 등 물리적 기기에 구현되는 AI로, 텍스트·이미지 기반의 생성형 AI와 구분된다. 통신망 역할이 AI 기계와 산업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통신 기술로 5G SA가 꼽힌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산업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저지연 통신 같은 기능 도입이 필수다. 5G SA 기반 네트워크 구조는 향후 6G와 AI 네이티브 통신망으로 진화하기 위한 전 단계 역할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고도화에 필요한 관련 통신 장비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현재 보유한 무선국을 모두 5G 코어 장비와 연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G 무선국과 기존 LTE 코어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망(NSA) 구조였다.

이동사들의 5G SA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인 RFHIC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송출하는 질화갈륨(GaN) 기반의 전력 증폭기(PA)를 설계·생산한다. 5G 통신 장비와 광통신 시장에 공급하는 히트싱크(방열판)와 적층세라믹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전송 장비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통신 부품 업체 오이솔루션은 무선국 데이터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광트랜시버를 생산하고 있다.

광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때에도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전송장비 업체 HFR은 전파 송수신(RU)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프론트홀·백홀 장비를 생산한다. 통신 장비 업체 풀리드는 무선 통신용 중계기 사업을 지속하면서 5G와 6G 핵심 기술인 오픈랜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5G SA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마친 상태다. KT는 2021년 갤럭시 시리즈에 이어 올해 초 아이폰17을 대상으로 5G SA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SKT '패스키', 소프트웨어 품질 최고등급

차세대 인증 솔루션. GS인증 1등급
비대칭 암호화 원리로 해킹위험 줄여
생체인식 등으로 사용 편의성 높아

SK텔레콤은 차세대 인증 솔루션 '패스키'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서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으로 기능 적합성과 보안성,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 SK텔레

콤은 이번 인증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패스키는 비대칭 암호화 원리를 통해 해킹 위험을 줄이는 보안 기술이다. 첫 사용 시 생성되는 개인키는 사용자 기기의 보안 영역에만 저장하고, 공개키는 서비스 서버에 등록해 인증에 활용한다.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가 오가는 대신 기기에 저장된 개인키로 서명한 값만 전송된다. 네트워크 상에는 키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사용 편의성도 높다.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등 생체 인식과 PIN, 패턴을 활용해 잠금을 해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 형태로 제공돼 기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이 복잡한 인증 기능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능을 미리 구현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패스키를 사내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기술 안전성 검증을 거쳐 대외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그라비티, 美 '라이선싱 엑스포' 첫 참가

라그나로크 중심 글로벌 사업 확장

그라비티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텐츠 행사 '라이선싱 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라이선싱 엑스포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소비자 등 다양한 산업군 기업들이 참여해 IP 라이선싱과 브랜드 협업, 콘텐츠 사업 기회를 논의하는 글로벌 행사다. 올해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그라비티는 이번 행사에서 대표 IP인 '라그나로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현장에서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애니메이션 ▲레퀴엠 ▲드래고니카 등 총 5개 IP를 선보인다.

그라비티는 최근 게임 중심 사업 구조를 넘어 애니메이션과 브랜드 협업 등 IP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마법 대소



그라비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텐츠 행사 '라이선싱 엑스포 2026'에 참가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사업 확대에 나선다.

/그라비티

동!'은 지난 6일 국내 카툰네트워크 방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글로벌 방영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그라비티가 이번 행사 참가를 계기로 북미와 글로벌 시장에서 라그나로크 IP 기반 트랜스미디어 전략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라비티는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파트너들과 IP 사업 협력과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인게임 협업,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라비티는 이번 라이선싱 엑스포 참가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와 신규 콘텐츠 사업 기회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NHN, 매출 6714억... GPU·스테이블코인·국방 AX 승부수

영업익 263억... 전년비 5% 줄어
게임·결제·클라우드 부문 성장 견인

NHN이 게임·결제·클라우드 성장에 힘입어 1분기 매출 6714억원을 기록했다. NHN은 GPU·스테이블코인·국방 AX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NHN은 12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7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0% 감소한 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NHN은 AI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국방분야 인공지능전환(AX) 사업을 올해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278억원을 기록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환경 변화 영향으로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상승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라인 디즈니 츄무츠무'가 12주년 이벤트와 '명탐정 코난' 협업 효과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결제 부문은 3546억원으로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NHN KCP 거대대금



NHN 사옥 '플레이뮤지엄'.

/NHN

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NHN페이코는 기업복지솔루션 사업 성장에 힘입어 식권 사업 분야 선두를 유지했다.

기술 부문 매출은 1257억원으로 집계됐다. NHN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고, 일본 기술법인 NHN테크리서치 역시 AWS리세일 사업 성장세가 이어졌다.

NHN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GPU 사업 확대 의지도 강조했다. NHN클라우드는 정부 GPU 구축 사업 일환으로 서울 양평 리전에 수생식 기반 GPU B200 인프라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에는 초고사양 GPU

B300 구축을 추진 중이다. 최근 AI 인프라 기업 베슬AI와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200억원 이상 매출도 기대하고 있다.

정우진 NHN 대표는 "AI GPU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 비용이 일부 반영되며 1분기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대규모 GPU 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기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NHN은 차세대 결제 시장 대응 전략도 공개했다. NHN KCP의 결제 인프라와 NHN페이코의 간편결제 데이터를 결합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NHN KCP는 자체 메인넷 구축과 결제 네트워크 연계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정우진 대표는 주주총회에서도 금융권과 스테이블코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 AX 사업 확대도 본격화한다. NHN두레이는 국방부 협업 플랫폼 '국방이음'을 올해 하반기 전군 3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익시오', 연내 말레이시아 상용화

현지 통신사업자 맥시스와 합의

을 논의했다.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통화 서비스 '익시오'가 연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상용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말레이시아 통신사업자 맥시스와 익시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출시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관계자들은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맥시스 본사에서 고소영 CEO, 로케지 앳CCBO 등을 만나 익시오 상용화 추진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포함해 출시한다. 온 디바이스 기반 AI 엔진의 다국어 처리 역량이 활용될 예정이다. 음성·문장 데이터가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아 응답속도가 빨라지고,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

양사는 향후 AI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와 B2B 솔루션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맥시스는 말레이시아 내 이동 통신회선 가입자 1000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